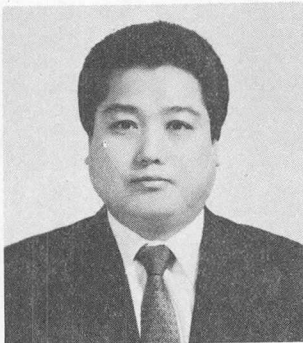


양돈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



류 세 창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한국 축산경영학회 회장)

한우, 낙농, 양계경영의 불황속에 유독 호황을 누리고 있는 양돈업이라 해서 안심하고 만족만하고 안일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세게 밀려오는 수입개방 압력에 따라 내년이면 외국산 돼지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가금고기 통조림, 소세지 유사제품 등이 한국의 양돈계를 위협하며 상륙작전을 벌일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양돈업계는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산 돼지고기와 싸워 이길 작전을 서둘러 세워야 할 것이다.

즉 양돈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긴급과제가 떨어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선 돼지의 능력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갈수 있도록 종돈의 개량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돈인, 학계, 정부가 공동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진 돼지를 갖고 있다 해도 그 유전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는 양돈인의 기술과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에서는 육질뿐만아니라 경쟁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다. 그래서 양돈경영자들은 국제수준의 저렴한 생산비로 돈육을 생산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절실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자면 홈 그라운드에서만 외국의 수입돈육과 시합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세우지 말고, 외국의 국제무대에 한국산 돈육을 출전시켜 시합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다.

즉 방어형의 양돈업에서 공격형 양돈업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76년도에 4 천 5 백72M/T의 돈육 수출에 이어, '77년도 4 천 9 백55M/T을 수출하여 각각 1 천 4 백14만 4 천달러, 1 천 5 백39만 9 천달러의 외화를 획득한 역사적 사실이 있으나, '78년 정부의 수출금지로 돈육수출국으로의 성장이 일단 중지되는 아쉬움과 함께 그 여파로 '79년도 사상최악의 양돈불황을 몰고 온 경험이 있다.

당시에 수출을 병행하면서 양돈 육성 지원자금을 풀었다면 지금쯤은 대일 수출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이다.

앞을 보면서 수립되어야 할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성급하고 단견적인 조치였었기에 우리나라 양돈의 국제화 수준을 후퇴시킨 결과를 몰고 왔다.

그결과 '79년에 겨우 3백24M/T, '80년에 2백52M/T, '84년에 2백96M/T, '85년에 2백18M/T의 수출실적을 올리는데 그쳤다.

수출 대상국인 일본은 연간 20만M/T, 대만은 6만M/T, 덴마크는 10만M/T의 돈육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불과 2백18M/T의 돈육 수출을 작년도에 했다는 것은 탐색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70년에 5년간의 일본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귀국할때 나고야 대학의 곤도(近藤) 교수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한국의 축산은 인근에 1억의 인구를 가진 일본을 시장으로 하여 성장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실감을 느낄 수 있다.

국제 개방경제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이 수입개방의 압력을 감당할 힘도 없으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양돈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양돈업계는 물론 학계,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의 방어력을 키우기 위한 조사분석과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인근의 돈육수입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돈육 수출국으로 부상시키는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당면과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다행히 양돈업계는 양돈협회의 강력한 조직과 양돈인의 규합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돈개량과 검정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계 수준의 기술도입을 위한 정책에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하며 학계

의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축산 비상사태”라는 급박한 생각으로 양돈경영자들은 경영능력의 부족을 메꾸는 일에 열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자기의 돈육생산이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어느 계층에 속하고 있으며 국제 수준에 비한다면 어떤 부문을 얼마나 향상시켜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다.

양돈업계는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겠다는 “목표설정”이 우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가능성은 인간이 생각한 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 양돈산업에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의 본산지인 미국에 한국의 자동차가 수출되고 있지 않는가?

한국 사람의 성실성과 연구심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한다. 우리의 돈육이 미국식탁을 점령하는 역사적인 진기록을 수립하는 문제도 양돈인의 정신자세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달나라에 인공위성이 떠나는 현재의 과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에 도전한 결과이다. 3개월밖에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세계의 발명왕 에디슨은 1천1백가지의 발명품을 남기고 갔다.

우리 인간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사람이나 똑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사람의 두뇌는 150억개라는 대뇌피질 세포로 조직되어 있는바, 건전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절대적 신념으로 지성의 노력을 한다면, 무한의 지성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뜻을 접수하며 한국을 세계에 돈육수출국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다.*